

일본 《가도가와문고》의 반동성

송 무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세계적으로 류포되고있는 부르쵸아문예사조는 각양각색이지만 그것은 레외없이 착취계급의 반동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으며 생활에서 본질적인것을 외면하거나 외곡하며 비본질적인것을 과장하고 미화분식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37페이지)

오늘날 세계에는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모순을 가리우고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을 정당화하는데 복무하는 각양각색의 부르쵸아문예사조와 류파들이 범람하고있다.

일본에서 발행되고있는 《가도가와문고》도 그러한 부류의 부르쵸아문학작품집이다.

《가도가와문고》란 일본 도쿄의 치요다구에 있는 《가도가와책방》에서 1949년부터 발행하고있는 작품집이다.

《가도가와문고》의 반동성은 첫째로, 그것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반동들의 정책수행에 복무한다는데 있다.

그것은 《가도가와책방》의 주인이었던 가도가와 겐끼가 1949년 5월 3일에 쓴 《〈가도가와문고〉의 발간에 즈음하여》라는 글에서 명백히 표현되고있다.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력설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배는 군사력의 패배인 동시에 미숙한 문화력의 패배였다. 일본의 문화가 전쟁에 대처하여 얼마나 무력하고 속절없는 꽃에 지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절감했다. 서양근대문화를 받아들인 명치이후의 80년세월은 결코 짧은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대문화의 전통을 마련하고 자신들을 자유로운 판단과 유연한 양식으로 부유한 문화층으로 준비하는데서 실패하여왔다. 이것은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문화를 보급 및 침투시킬것을 임무로 하는 출판인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1945년이후 우리는 출발선으로 되돌아가 첫걸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큰 불행이지만 혼탕되고 외곡된 일본의 미숙한 문화에 질서를 세우고 확고한 기초를 닦는데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가도가와책방》은 이러한 일본의 문화적위기에 직면하여 다시는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재건의 초석으로 될 포부와 결의를 안고 창립후 지금까지의 념원을 이룩할 목적으로 이제부터 《가도가와문고》를 발간한다. ...》

이 글을 통하여 가도가와 겐끼가 어떤 사상적경향을 가진 인물이였으며 그가 《창간》했다는 《가도가와문고》라는것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있는 작품집인가를 알수 있다. 가도가와 겐끼는 군국주의일본의 패망을 몹시 통분해하면서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를 《문화적미숙성》에서 찾고있다. 그가 말한 《다시는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재건》이란 다름아니라

다시는 패하지 않을 군국주의일본의 부활을 녀두에 둔다. 결국 가도가와 겐끼는 군국주의자이며 그가 첫시작을 댈 《가도가와문고》는 군국주의를 전 일본사회에 부식시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동적인 작품집이다.

이 문고에 실린 가도다 야스아끼의 장편소설 《저격》(1982)은 《자위대》군부의 쿠데타시도가 실패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강경한 대내외정치는 하되 군사내각의 수립과 같은 로골적이고 급전적인 방법은 시기상조이니 점차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것을 교묘하게 암시하고있다. 《가도가와책방》은 1982년부터 1994년까지 13년동안 무려 28차에 걸쳐 장편소설 《저격》을 반복출판하였다. 이것은 이 작품이 《가도가와문고》의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도가와책방》이 이러한 소설들을 통하여 군국주의의 부활을 부추기고있음을 립증해준다.

《가도가와문고》의 반동성은 둘째로, 그것이 자본주의의 사회악과 모순을 외면하고 부패타락한 자본주의생활양식을 퍼뜨린다는데 있다.

《가도가와문고》는 자본주의의 사회악과 모순을 외면하고 한푼의 가치도 없는 저속한 내용의 작품들을 마구 람발하면서 염세와 비애, 종교교리와 신비주의, 색정주의를 로골적으로 설교하고있다.

실례로 쿠로이와 주고의 소설 《조화의 값》은 이른바 《경제성장기》의 한 기업회사에 뛰여든 사무원의 비애와 심리를 파고들었으며 모리 다카코의 소설 《클레오파트라와 꿈》은 에짚트녀왕 클레오파트라의 고충과 비극적죽음을 그리였다. 오오가와 류호의 소설들인 《태양의 법》, 《황금의 법》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최상의 높이에 이르겠는가 그리고 신의 계획이 어떻게 지상에 전개될것인가, 3차원인식을 타파하는 공간론은 무엇이겠는가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종교교리와 신비주의를 설교하고있다.

한편 고끼 간지의 소설 《비오는 날에는 차를 닦고》는 아홉대의 차와 아홉명의 녀자를 사랑했다는 주인공의 사말사를 보여주고있으며 아카가와 지로의 《도망친 신부》는 열세살난 《신부》가 도망친 이유를 한 녀대학생과 그의 애견이 밝혀내는 이야기를 라렬하고있다. 한편 바바라 데라오카의 《매춘부의 성서》는 귀족녀자가 매춘부로 전락되는 과정을 그리고있다.

이처럼 이 문고는 문학예술의 고유한 본성을 무시하고 극도의 자연주의, 형식주의를 추구하면서 생활의 본질을 외곡반영하고있을뿐만아니라 형식을 내용과 분리시키고 내용을 형식에 복종시킴으로써 작품의 사상성은 물론 예술성자체도 손상시킨다.

결국 《가도가와문고》는 출판업자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돈벌이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가도가와문고》의 반동성은 장편소설 《저격》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장편소설 《저격》은 1970년대 후반기—198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도쿄검찰의 특수부 주임검사 구로끼 효스께가 《자위대》군부의 쿠데타시도를 《적발분쇄》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작품은 《자위대》군부의 쿠데타음모가 실패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얼핏 보기에 군사정부나 군국주의를 반대하는듯 한 인상을 주고있지만 구체적으로 해부해보면 그와는 반대로 군국주의부활을 은근히 주장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작품에는 총적으로 두개의 인물집단 즉 쿠데타세력과 반쿠데타세력이 등장하며 이

두 세력간의 대립과 갈등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하고 전개된다. 그러나 일본의 대내외정치에 대한 견해에서 쿠데타세력과 반쿠데타세력은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소설에 등장하는 쿠데타세력과 반쿠데타세력은 서로 한배속이며 랑립, 공존할수 없는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아니라 비적대적인 갈등관계에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건해명의 화살은 미국이나 이전 쏘련과 같은 이른바 《외부로부터의 악》에 집중되고있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악》이 생기게 되는것은 바로 일본의 정치가 강경하지 못한데 있으며 그것을 없애자면 강경한 대내외정치 즉 군국주의부활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이 이 작품의 주장이다.

소설에서 일정하게 표현되고있는 이른바 《반미》적인 경향도 옳게 보아야 한다. 소설의 사건줄거리는 반쿠데타세력의 대변자-《검은 표범》(구로끼 호스께)과 쿠데타세력의 대변자-《흰 승냥이》와의 대결에서 절정을 이루며 《검은 표범》이 《흰 승냥이》를 《징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자들내부의 모순과 알룩에 기초한 《반미》적인 경향이다. 미제를 등에 업고 힘을 키운 군국주의일본이 이제는 제 상전과 동등한 지위에서 《독자적인》 정치를 해보겠다는것이 이 소설에서 이른바 《반미》적인 경향으로 나타난것이다.

소설은 반쿠데타세력을 《공정인물》집단으로, 쿠데타세력을 《부정인물》집단으로 형상하고 반쿠데타세력이 쿠데타세력을 이기는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강경한 대내외정치는 하되 군사내각의 수립과 같은 로골적이고 급진적인 방법은 시기상조이므로 점차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것을 교묘하게 암시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비록 쿠데타가 실패하는것으로 그려보여주었지만 작품은 그와는 반대로 일본이 《가해자》, 《전패국》이라는 죄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이전 쏘련이나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제 할 소리를 하며 《떳떳이 살자》고 하면서 그 방도를 군국주의부활에서 찾아야 한다고 은근히 주장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가도가와문고》와 같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수단들을 통하여 벌써 수십년간 군국주의를 전 일본사회에 류포시켜왔으며 그에 기초하여 이제는 로골적인 침략의 길에 나선것이다.

소설은 반동지배층의 하수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를 《초인간적》존재로 리상화하였으며 흥미본위의 구성과 미사려구로 자본주의일본사회를 미화분식하고 자연주의, 형식주의를 추구하였다.

우선 작품은 반동지배층의 하수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를 《초인간적》존재로 리상화하였다.

소설에서 주인공 구로끼는 정부우두머리들과 똑같은 정치적견해를 가진 인물로 형상되어있다. 작품은 반동지배층을 위하여 복무하는 구로끼와 같은 법관계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를 《초인간》으로 리상화하면서 그의 능력을 찬양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자본주의일본사회를 미화분식하였다.

주인공 구로끼는 경시청 경부를 하다가 남들같으면 빨라도 6년이상은 걸려야 오를수 있는 검사자리에 서른세살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단번에 뿔쳐온자로서 일본의 정치, 경제계에서는 그를 가리켜 《검은 표범》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한다.

그는 가이암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자위대》련대의 실종사건과 련관되어있음을 《룩감》으로 포착하며 옆방에서 매어리가 돌리는 전화기번호판이 돌아가는 소리를 엿

듣고 그 번호를 알아맞히는 《귀신》같은 검사이다. 사건수사의 전 과정에 그는 무려 9차에 걸쳐 단도와 줄봉, 권총과 자동보총을 가지고 덤벼드는 암살자들과 혈투를 벌리는데 칼에 찔리고 총상을 입으면서도 쓰러지지 않으며 권총으로 직승기까지 격추하는 《무서운 사나이》로 그려지고있다.

부르조아탐정추리소설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작가 에드거 앨런포우나 영국작가 아서 코난 도일 등은 자기들의 작품들에서 반동지배층과 유착되어있지 않는 개별적 부르조아지나 개인탐정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들의 《역할》에 의하여 모든 부정의가 징벌되는듯이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였다면 일본작가 가도다 야스아끼는 이 소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동지배층과 밀접히 유착되어있는 법관계인물을 내세우고 그의 《능력》을 찬양함으로써 자본주의제도를 더욱 미화분식하고 옹호해나서고있다.

가도다 야스아끼는 이 작품다음에 내놓은련속소설 《무라우미류-기업암살》에서도 구로끼처럼 《뛰어난》 주인공인 무라우미류를 설정하고 그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에 의하여 이른바 《기업〈악〉》이 징벌된다는 식으로 그리었다.

또한 작품은 흥미본위의 줄거리구성과 미사려구에 매달리면서 문학의 고상한 본성을 외곡하고 어지럽히고있다.

정치환상소설이라고 말할수 있는 이 작품은 첫시작부터 《자위대》의 한개 련대가 행방불명되는 사건을 설정하고 마지막까지 흥미본위적이고 령기적인 사건들을 엮어나갔다. 8개 장으로 구성된 소설은 매 장마다에서 예상밖의 놀랍고 아슬아슬한 사건과 싸움장면을 라렬하고있다.

가도다 야스아끼는 첫 작품인 《어둠속의 총리를 징벌하여》(1980)를 비롯하여 순수사건본위, 흥미본위의 작품들인 《배반의 조건》, 《거탑붕괴》, 《야망의 광연》, 《첩보원들의 밤》, 《신권총탄전쟁》 등을 내놓았다.

사건추리소설의 견지에서 볼 때 가도다 야스아끼의 작품들은 20세기 중엽 일본의 추리소설들에 큰 영향을 주었던 히라히따로의 소설들과 류사한 경향을 띠고있다. 미국추리소설가 에드거 앨런포우를 본따서 《에드거 앨런포우》라는 필명을 쓴 히라히따로는 령기적이고 흥미본위적인 소설들을 쓴 부르조아반동작가였다.

가도다 야스아끼도 히라히따로의 본을 따서 비현실적인 착상이나 논리를 추구하면서 령기적이고 흥미본위적인 소설창작에 몰두하였다.

작품에서 《자위대》의 웅근 한개 련대가 실종되었다가 시체로 나타나는 사건, 주인공이 혐의자들을 추적하는 전 과정에 만능열쇠라든가 《최신형초감도탐음기》 등을 늘 휴대하고 다니는것 등은 억지로 사건을 흥미본위로 진척시키려는 작가의 유치한 착상이다.

그리고 작품에 나오는 70여명의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일본과 미국, 소련의 정계요인이거나 군부상층, 비밀기관관계자들이고 피압박근로대중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다.

우리는 부르조아어용출판물의 반동성을 똑바로 알고 철저히 반대배격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